

GTX-D·E·F 노선, 민간 업계와 신속 추진 논의 광폭 행보

- 5월 9일 국토부-업계 간담회 개최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5월 9일(목) 업계 간담회를 통해 GTX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.
 - 간담회는 대통령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(1.25)*에서 발표한 GTX-D·E·F 신설 및 A·B·C 연장 등 2기 GTX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하였다. * "출퇴근 30분 시대, 교통격차 해소"
- 간담회에서는 GTX-D·E·F 신설 노선 등에 대해 민간업계에서 민간 제안 방식 추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, 업계를 대상으로 정부의 GTX 정책 방향 및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.
 - * (참석) 삼성물산, 현대건설, GS건설, 대우건설 등 건설사, 삼보기술단, 도화 ENG, 동명기술공단 등 설계사, 우리자산운용, 한국산업은행 등 SOC 포럼 소속 회원사(20여개)
-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GTX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, GTX-D·E·F 노선 등에 민간 창의성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.
 - 2기 GTX 사업은 현재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('25년 수립) 반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.
 - GTX-A·B·C 사업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 중인 만큼, 민간 재원을 활용하여 SOC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함께 긴밀히 논의한다.
 - 민간의 GTX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해소 방안도 마련하여 2기 GTX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.

□ 한편, 국토부는 2기 GTX 추진방안 발표 이후, GTX 노선이 예정된 지자체 권역별로 “찾아가는 릴레이 설명회”를 개최*하는 등 2기 GTX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직접 소통해 왔다.

* (1차) 경기 서북부·인천 (2.28, 인천시청), (2차) 경기 남부·충청 (3.19, 경기도청), (3차) 경기 동북부(4.25, 경기도청), (4차) 경기 동남부·강원(5.16 예정), (5차) 서울(5.28 예정)

○ 현재까지 1차 경기 서북부·인천 권역 총 8개, 2차 경기 남부·충청 권역 총 16개, 3차 경기 동북부 권역 총 10개의 지자체 담당자들을 만났다.

-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수요 진작, GTX 인근 역세권 개발 및 연계 교통 강화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한편, 지역 민원을 함께 해결하고자 협력을 강화해 왔다.

□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“2기 GTX 발표 이후, 업계에서 사업 제안 방식과 범위,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만큼, 이번 간담회가 현장의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”면서,

○ “국민들께서 GTX 서비스를 신속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기본으로 민간 재원의 투자도 필수적인 만큼,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GTX 관련 업계,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, 후속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GTX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” 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철도국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추진단	책임자	단 장	이경석 (044-201-4166)
		담당자	팀 장	황세은 (044-201-4161)
			사무관	진영민 (044-201-4162)
			주무관	김지현 (044-201-4163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

